

8 다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 장에서는 곡선 또는 곡면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적분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적분이 실제 응용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8.1 곡선

곡선이란 기하적으로 구불구불한 (유한 또는 무한) 선분을 뜻한다. 우리는 곡선을 원, 타원, 포물선, 직선 등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곡선을 보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도입하도록 하자.

정의 8.1 곡선 C 이란 구간 $I \subset \mathbb{R}$ 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phi: I \rightarrow \mathbb{R}^m$ 를 말하며 함수 ϕ 의 치역(ϕ 에 의한 I 의 상)

$$\phi(I) = \{\mathbf{x} \in \mathbb{R}^m : \mathbf{x} = \phi(t), t \in I\}$$

을 C 의 자취, t 를 곡선의 매개변수, 구간 I 를 매개변수 구간이라 한다. 이 경우 곡선 C 를 간단히 순서쌍 $C = (\phi, I)$ 으로 나타낸다. 점 $\mathbf{x} \in \mathbb{R}^m$ 가 C 의 자취에 속하면 곡선 C 위에 있다고 한다.

보기 1 $\mathbf{x}_0, \mathbf{a} \in \mathbb{R}^m$ 라 하자. $\phi(t) := t\mathbf{a} + \mathbf{x}_0$ 에 대한 \mathbb{R} 의 상은 직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연습문제 2). 이것을 \mathbf{x}_0 를 지나고 \mathbf{a} 방향으로의 직선이라 부른다. 직선은 \mathbb{R}^m 에서 가장 단순한 곡선이다.

보기 2 $\phi(t) = (\cos t, \sin t)$ 에 의한 구간 $[0, 2\pi]$ 의 상은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은 곡선이다.

증명 8.1 절의 참고 1 에 의하여 $\phi_u(u_0, v_0)$ 는 (x_0, y_0, z_0) 에서 곡선 $\phi(u, v)$ 의 접선벡터이고 $\phi_v(u_0, v_0)$ 는 (x_0, y_0, z_0) 에서 곡선 $\phi(u, v)$ 의 접선벡터이다. 따라서 (x_0, y_0, z_0) 에서의 접평면에 대한 법선은 이러한 두 벡터의 외적에 의하여 주어진다(그림 8.14). 그러므로 $\phi_u(u_0, v_0) \times \phi_v(u_0, v_0)$ 는 (x_0, y_0, z_0) 에서 S 의 법선벡터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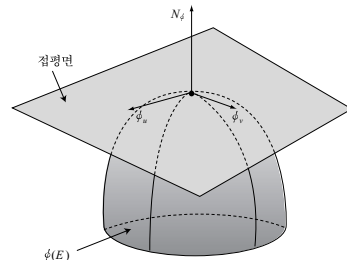


그림 8.14

$z = f(x, y)$ 이 곡면이고 $\phi(x, y) = (x, y, f(x, y))$ 이 곡면의 자명한 매개화이면 $N_\phi = (-f_x, -f_y, 1)$ 이다. 이것은 정리 6.25 와 6.1 절의 참고 1 과 동일하다.

ϕ' 를 N_ϕ 로 대체함으로 해서 앞의 두 절에서 언급한 곡선의 이론과 유사한 곡면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 정의 8.3 과 다음 정의를 비교하여 보자.

정의 8.12 $p \geq 1$ 일 때 (ϕ, E) 를 C^p 곡면 또는 C^p 매개변수라 하자.

- (i) $N_\phi(u_0, v_0) \neq 0$ 이면 (즉, $\|N_\phi(u_0, v_0)\| > 0$ 이면) (ϕ, E) 는 $(u_0, v_0) \in E$ 에서 매끄럽다고 말한다.
- (ii) (ϕ, E) 가 E 의 각 점에서 매끄럽다면 (ϕ, E) 는 매끄럽다고 말한다.
- (iii) (ϕ, E) 가 $E \setminus E_0$ 의 각각의 점에서 매끄러우면 집합 $E_0 \subset E$ 을 제외하고 매끄럽다고 말한다.

곡면 $z = f(x, y)$ 는 항상 매끄럽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곡선에서와 같이 $(u_0, v_0) \in E^\circ$ 에서 $\phi(u_0, v_0)$ 의 접평면을 갖지 않는 곡면 (ϕ, E) 는 (u_0, v_0) 에서 매끄러울 수 없다(연습문제 7). 한편으로 매끄럽지 않은 매개변수 표현을